

# 우리들 정신과 영혼의 가을걷이를 위해

## 명사들이 추천하는 이 가을 이 한권의 책

책읽기에 좋은 계절이 따로 있을까마는 그래도 폭서의 여름보다는 혹한의 겨울보다는 좀더 여유있는 독서가 가능한 계절이 가을 아닐까. 달력에 유난히 붉은 숫자가 많은 요즘, 열아홉명의 각계 명사들이 이 계절에 읽을 만한 책을 한권씩 추천했다. 야외로의 나들이도 좋지만 그중 하루쯤은 조용히 앉아 독서삼매에 빠져봄이 어떨까.

###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이영희/두레)

이 교수는 지난 7, 80년대 우리시대 지식인들의 좌표였다. 그는 그 어려웠던 시절, 자신을 지키는 사람의 모범적 자세를 보여줬던 이다. 그가 쓴 어느 글에선가 “이제는 나의 책이 그만 읽히길 바란다”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그 말은 이제 그의 주의·주장이 진보적인 특수 시대의 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론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이후 더이상 새로운 시대의 저술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혼란상황이 우려돼서일까. 이 책은 오랜만에 들려오는 그의 새 목소리다. 이 시대 지식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추억의 읽을거리가, 신세대들에게 강렬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란다.

(유홍준 영남대 회화과 교수)

### ■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100(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울)

심장이 안 좋아 4년째 고생중이다. 몇종의 의학관련도서를 찾아 읽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건강상식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현대인들에게 건강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들을 위해 근자에 출간된 이 책을 권하고 싶다. 폭넓고 올바른 의학지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정상비의학도서’로서도 필요한 책이다. 87년 창립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쓴 이 책은 일반인들이 헛짚은 의학상식 100가지를 쉽게 해설하고 있다.

(강희일 대학도서관협회 사무총장)

### ■ 세기말과 세기초 (빌리 하스/까지)

연휴 때면 일상성에서 벗어나 ‘놀이’의 시간을 즐긴다. 이번에는 책읽는 즐거움을 맛볼 것 같다. 얼마전 번역출간된 이 책은 1967년에 출간된 이래 여러나라에서 번역된 것으로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됨은 그만큼 우리의 문

화적 성숙도를 말함일까. 때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파리와 런던, 빈과 뮌헨을 무대로 시와 문학, 음악과 조형예술, 사상과 과학이 카페와 극장무대, 공방과 서재, 살롱과 도시의 광장에서 현란하게 연출된 탐미주의와 니힐리즘 속에서 아로새겨진 그 모더니즘의 풍요는 유럽 부르조아문화의 ‘가을’을 말함일까. 기술과 산업이 주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 일컬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분명 19세기말은 원체(벨 에포크) 그대로 ‘좋은 시대’ ‘아름다운 시대’였음이 틀림없다.

(이광주 인제대 사학과 교수)

### ■ 조상 제례 (임돈희/대원사)

때가 때인지라 한가위 명절에 어울리는 책을 한 권 골라봤다. 우리가 언제 자신의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의 개념을 되새겨볼 수가 있겠는가. 차례상을 모시는 이럴 때 한번쯤 들춰본다면 적어도 무식은 면할 수 있겠다. 이 책은 제례의 종류와 대상, 참가자손, 절차와 음식에 이르기까지 제례의 모든 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종전의 민속학적 입장을 넘어 인류학쪽에서 접근한 점이 특이하다. 한국인에게 제례는 죽음이후 자손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문화적 장치이기 때문에 한국의 노인들은 죽음을 단절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생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황루시 강릉대 국문과 교수)

### ■ 詩集 몇권

가을의 독서에는 ‘시집 몇권’이 한껏 어울릴 것 같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지닌 ‘응축의 감성’이 시의 세계와 몸 부비는 근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몇권의 시집들이 당신들의 가을을 더욱 투명한 목소리로 적시고, 모처럼 정신의 창고를 열고 들어가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의 문, 그 ‘돌쩌귀’가 빠져거리지 않도록 적량의 기쁨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의 시가 그런 화해의 매체가 아니라도, 그 절망과 해체의 몸짓들을 적극적인 희망의 포드로 수용하시라. 그래도 시는 역시 시다.

(정진규 시인·「현대시학」 주간)

### ■ 모래 (알람 폴섬/서적포)

산업이 발달하면 인간들에게 정신적 공황이 오는 듯하다. 최근 추리소설이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는 것도 이와같은 입장에서 이해해 볼 만하다. 각박하고,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는데, 이 책은 그러한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우리와 정치적 상황은 다르지만 심리묘사가 탁월하고 박진감이 있다. 입체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지만 무엇보다 책 전반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도 없지 않지만, 탄탄한 구성력은 추리소설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정건섭 추리소설가)

### ■ 21세기를 위한 준비 (폴 케네디/한국경제신문사)

미래를 대비한 책이 많이 나와 있는 형편이다. 이제는 미래학이라는 ‘학’으로까지 연구되고 있다. 폴 케네디는 역사학자지만 총체적 시각에서 미래를 대비한 준비사항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의 책은 미래학에 대한 방법론까지 아우르고 있는데,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교육개혁과 여성의 지위에 관한 주장은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또한 총체적 리더십도 이제는 인텔리전트 리더십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나 사회에 매우 긴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공성진 한백연구재단 소장)

### ■ 소중한 사람들 (토니 모리슨)

내가 감명받은 소설이다. 모두 알다시피 저자는 지난해 노벨상을 받아 세계적인 명망을 얻은 작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작품이 노벨상 수상 이전에 번역될 정도로 알음알음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다. 미국이란 나라가 의도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시대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흑인들의 공동체를 백인들은 어떻게 파괴했는가. 남자 중심, 백인 중심의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서 읽는 즐거움이 더하다. 감추고 있는 미국의 역사에 대한 고발이라고나 할까.

(박거용 상명여대 영문과 교수)

### ■ 님의 침묵 (한용운)

나는 매년 이맘때면 「님의 침묵」을 반드시 한번은 정독한다. 일상에서 쓰는 어휘들이라 전혀 어렵지 않고 문투 또한 구어체라 애절함이 더 살갑게 파고든다. 연애할 때 읽으면 연

애국심이 솟는다. 읽는이에 따라 그 ‘님’의 의미가 다 달라지니 그것이 만해의 뛰어난 점이 아닐까. 하나의 특정한 것을 주장하지 않고 중생들의 根機에 따라 그것이 모두 다르게 보임이라. 만해가 특별히 시공부를 했을 리 만무할 텐데 어찌 그런 고도의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그건 만해가 무수히 읽었다는 대장경 때문이지 않을까 혼자 짐작해 보곤 웃는다.

(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 ■ 미토스 (이윤기/고려원)

그리스 신화를 소설화한 작품이다. 신화는 과거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삶의 전형이 있고, 복잡한 삶의 양상이 정리된다. 또한 인간의 의식이나 문화구조가 그 속에 녹아들어 있다. 때문에 신화는 현재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 무엇이다. 그리스 신화는 원전으로 읽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하다. 소설로 되어 있어서 그리스 신화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한 줄기를 발견하는 것도 이 가을에 썩 어울리는 독서가 될 법하다.

(정진홍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 퀴리부인전

이 책은 거의 반세기 전에 읽었던 책인데, 요즘 다시 읽고 싶다. 내 고향은 북쪽,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중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홀로 남게 되었다. 퀴리부인은 자연과학자이고, 나는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아마도 실험된 의식이 퀴리부인의 인생역정에 공감과 공분을 일으켰던 것 같다. 그녀는 폴란드 출신으로 패망한 조국을 안타까워하며 프랑스에서 연구하지 않았던가. 못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원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원장)

### ■ 토지 (박경리)

남극 연구를 위해 그곳에서 세번 일동을 했다. 그 기간에 틈틈히 읽은 박경리 선생의 「土地」가 감명깊었다. ‘지금 이곳’을 있게 한 우리 시대 직전의 민족사를 유려하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논픽션을 좋아하고 소설을 별로 읽지 않는 편인데, 「土地」는 논픽션보다 생생했다는 느낌이다. 남극

에서의 '세번째 월동시기'인 작년말부터 올초까지 찰스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를 번역하느라 바빴는데, 시간 나는대로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장순근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부장)

#### ■ 빈 공간 (피터 볼루크/청하)

유대계 영국인이면서 그 유명한 「마하바라타」를 연출한 저자의 저서(원제 「The Empty Space」)를 번역한 책이다. 내용은 연극에 있어서의 공간개념에 치중하면서 신성공간으로 변모하는 극장과 성스러운 연극의 개념에 관한 정리이다. 공연예술에 있어 실제 전문가가 썼기 때문인지 막이 올려지는 순간부터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을 집중케 하는 연극의 묘미를 관객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가을을 맞이한 요즘, 동승동을 위시한 여러 짜투리 공간에는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이 책을 통해 연극에 관한 기초개념을 알고 나면 단조로운 연극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리라 확신한다.

(강만홍 연출가·서울예전 연극과 교수)

#### ■ 아리랑 (남 웨일즈/동녘)

남편 에드가 스노우와 함께 일제시대의 중국을 취재한 남 웨일즈의 취재력이 돋보인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산의 일대기를 시대상황과 함께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취재기인 만큼 문장이 평이해서 읽기 쉬운 뿐만 아니라 소설적인 재미까지 주고 있다. 김산은 한국인으로서의 중국의 사회주의 운동에 온몸으로 투신한 인물.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였던 김산의 활동을 통해 그 시대의 암울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금기시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의 애환이 담겨 있어 새로움을 더해주는 책이다. 역사의 한켠에 밀쳐두었던 분야를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송기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 포위된 성 (전중서 지음/오윤숙 옮김/실록)

1930~1940년 당시, 중일전쟁과 모택동 정권을 맞이한 중국의 지식인 사회를 적나라하게 풍자한 장편소설. 격변하는 시대상황을 받아들이는 지식인들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과 비겁성을 마치 바늘끝으로 건드리듯이 묘사한다. 당시의 시대상황도 잘 반영하고 있어 그 시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아마도 중국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중성을 이처럼 탁월한 심리묘사와 풍자로 압축시킨 소설도 드물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로 1940년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으나 모택동이 공표한 사회주의 문학이론에 어긋난 부르주아 작품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 작품을 끝으로 절필선언을 했다. 번역도 아주 좋다. (김언중 경희대 중문학과 교수)

#### ■ 미디어 제2의 신 (토니 슈와르츠 지음/심길중 옮김/리울)

글쓰는 행위마저 컴퓨터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요즘, 현대사회는 멀티미디어의 시대라는 얘기가 실감난다. 「미디어 제2의 신」은 미디어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보통 사람들도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저자는 뉴욕의 방송채널인 WUNYC에서 활동했던 현장 방송인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기도 하다. 사시사철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굳이 지면을 빌어 추천하는 이유는 상당히 부드러운 논조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어서 딱딱한 미디어의 개념을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녹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광고인과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라도 미디어에 관한 훌륭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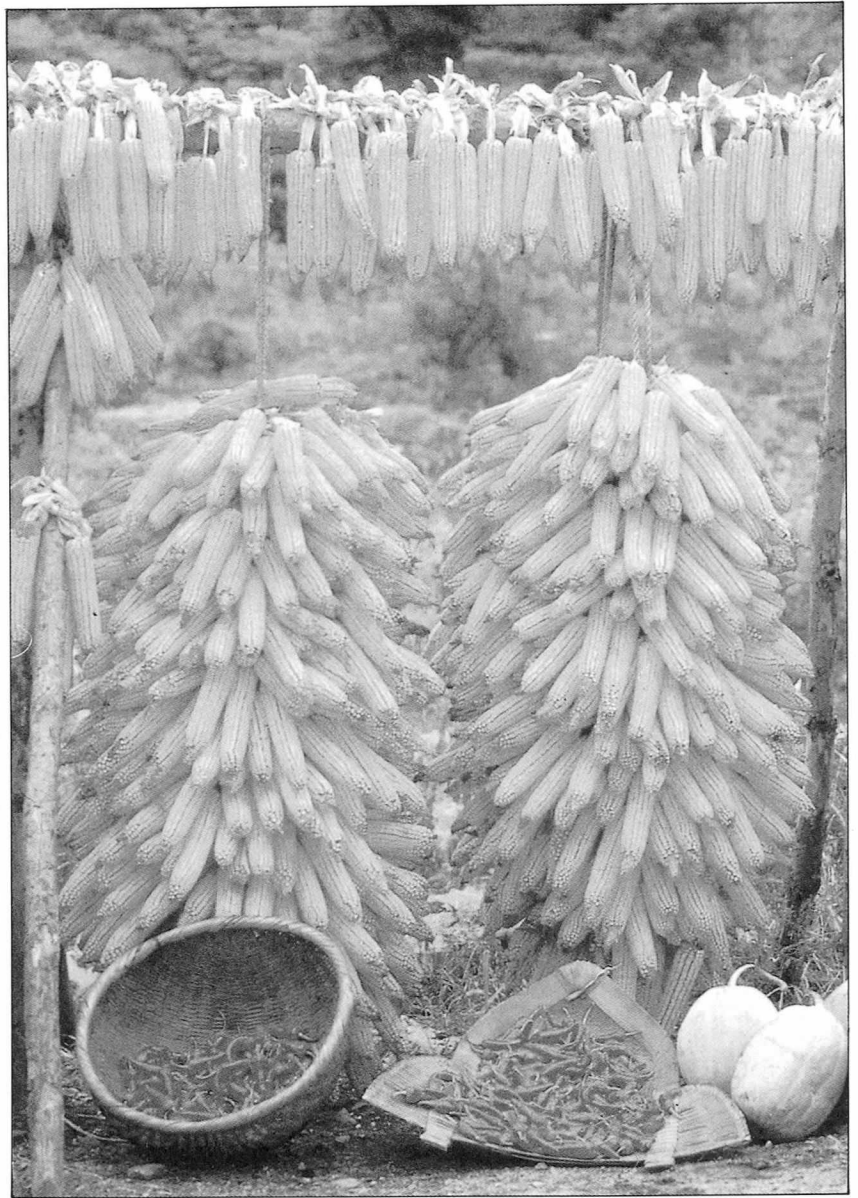
(박기동 소설가·서울예전 교수)

#### ■ 접촉 (테스먼드 모리스 지음/지성사)

테스먼드 모리스의 저서는 지금 추천하고자 하는 「접촉」 외에도 「바다위칭」 「털없는 원숭이」 등이 있음을 밝힌다. 「접촉」은 「가시고기」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틴벌겐과 로렌스, 후레쉬 이 세 사람이 주목했던 조류와 어류의 행동학을 모리스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부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영장류와 원숭이 무리를 관찰하던 모리스는 어류, 조류의 행동학을 인간의 행동학으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 모리스는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느끼는 접촉뿐만 아니라 악수하고 운동하고 사회적인 접촉을 갖는 행동기제들을 심리학과 행동학의 관점에서 재미있게 엮었다. "자연을 보던 그의 눈이 인간을 보는 눈이 된 것이다." (권오길 강원대 생물학 교수)

#### ■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사벨 비숍/살림)

가을은 여행의 계절이라고 한다. 이 가을에 산과 들이 아닌 時空으로 떠나는 여행은 어떨



까? 책을 펼치는 순간, 비숍 여사는 우리들을 백년 전의 조선 땅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곧 우리들의 시야를 확장시킨다. 오래된 정교하고 잘 찍은 사진들로 가득찬 사진첩처럼, 이 책 곳곳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지난 시대의 모습과 풍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숨쉬고 움직인다. 그리고 한 영국 여인의 눈에 비친 조국의 백년 전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새삼 확인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이 땅 위를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역사의 유동성이다.

(송우혜 작가)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시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어 재미있게 읽었다. 한국인의 의식의

폐쇄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1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식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의 페미니즘이론을 도입한 학자나 외국에서 공부한 페미니스트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그들의 주장이 오늘날 아직도 남아 있는 유럽들에게 얼마나 생경하게 들릴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칠 만한 우리의 민속에 대해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다른 시각에서 우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독후감이 될 터이다.

(이나미 정신과 전문의)